

安·非安 대결에 이연주 변수 ... 결선투표 가능성 커졌다



주먹 친 네 후보 지난 12일 오후 충남 공주시 동학세미나장에서 열린 국민의당 청년·여성 핵심리더 워크숍에서 당 대표 후보들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 8·15 경축사 문재인 대통령 北문제 해법 제시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 8·15 경축식 경축사를 하는 데 이어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에는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22일부터는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어 이달 말까엔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정책 제안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밝히고 설명하는 '국민보고대회'도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행사들을 계기로 국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향후 국정운영 기조의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당장 가장 주목되는 현안은 북한 문제다.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표출로 한반도에서 위기감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의 격한 충돌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굳이 개입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반도 당사국인 국가원수로서 조속히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둔 관련 메시지를 발송할 최적의 시점은 이를 앞으로 다가온 8·15 경축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경축사에서 북미 양국의 정체되지 않은 위협 발언 자제를 촉구하면서 도한 상황 타개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는 길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서로를 향한 일체의 무력 사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외교적·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 방향을 짚을 것으로 전망된다.

때마침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위기 고조 이후 첫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국면이어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8·15 경축식에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노동하던 군함도 생존자가 초청되는 만큼 대일(對日) 및 보훈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강화와 집값 하락 효과를 내는 부동산대책, 중소기업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선명하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개헌 등에 대한 견해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본격적인 개혁정책 드라이브에 대한 기조도 밝힐 공산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대표 경선 4파전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이연주 의원이 지난 11일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권 경쟁은 안철수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 천정배 전 대표 등이 참여하는 4파전으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경선 구도는 안 전 대표와 친안(친안철수)계인 이 의원, 비안(비안철수)계인 천 전 대표와 정 의원의 사이의 대결로 좁혀지게 됐다. 특히 이 의원의 출마로 결선투표 가능성이 더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애초 이 의원은 안 전 대표의 러닝메이트로서 최고위원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돌연 이 의원이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제기된다. 우선, 안 전 대표의 중도 노선과 성향이 비슷한 이 의원의 출마로 당내 중도 표심이 분산될 경우 안 전 대표 측이 자신했던 '1차 투표 과반'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이 의원이 보여준 그동안 정치적 역량을

"1차 투표서 과반 득표는 어려워졌다" 분석 우세 이연주, TV토론서 安 지원사격 위해 출마 의견도 정동영·천정배 후보 단일화 및 결선 세규합 관심

고려할 때 각 후보의 득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분석도 있다.

이 의원이 친안계 대 비안계 전선을 선명하게 구축하기 위해 출마할 것이라 해석도 있다. 즉, 안 전 대표 지지자들의 결집력을 높이기 위해 출마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TV토론 과정에서 정동영·천정배 후보에 대해 안 전 대표를 지원사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있다. 따라서 만약 안 전 대표가 결선투표에 진출하는 경우 이 의원의 표가 결국은 안 전 대표에게 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개혁파 성향이자 호남을 지

역구로 둔 정 의원과 천 전 대표의 단일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들은 대선패배 및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안 전 대표를 향한 '책임론'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양측은 아직 단일화와 관련한 언급에는 신중한 모습이지만, 단일화가 아니라도 결선투표가 현실화할 경우 세를 규합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선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가 분리됨에 따라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어느 당대표 후보자와 러닝메이트를 이룰지도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고위원 경선에는 이동섭 의원과 장진영 전 대

변인, 박주원 경기도당위원장, 김용필 충남도의원, 평당원 김진성 한의사 등 5명이 출마했다. 또 여성 위원장에는 박주현 의원과 전정희 전 의원, 청년위원장에는 배준현 부산시당위원장과 장성배 청년경제인특위 부위원장, 심철의 광주시의원, 이태우 전 청년위 부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낸 이동섭 의원이 "안철수와 함께 흠어진 당심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발언한 것 외에는 아직 뚜렷한 '찍짓기'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안 전 대표와 천 전 대표는 차우 러닝메이트 구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며, 정 의원의 경우 러닝메이트를 따로 지명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14일 오전 8시30분부터 30분간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공명선거 선포식'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또 국민의당은 14일 당권주자들간 첫 TV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후 전당대회 당일인 27일까지 모두 5회에 걸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동영, 중간평가제 도입 등 혁신 9대 과제 발표

국민의당의 8·27 전당대회에 대표 후보로 나선 정동영 의원은 13일 당 대표와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에 대한 중간평가제를 포함 당 혁신 9대 과제를 발표했다.

정 의원이 내건 당 혁신 9대 과제는 ▲당원주권 조항의 당헌 명문화 ▲1일 국민 최고위원제도 도입 ▲스마트정당 기반의 시스템 구축 ▲중간평가제 도입 ▲당직자 직무교육 강화 등을 통한 서비스 정당화 ▲당 교육 연수 강화 ▲중앙당의 원내화 ▲

당비의 당원활동 환원 강화 ▲공직선거 진출 기회 확대 등이다. 정 의원은 또한 당원주권 실현과 강력한 공당시스템을 통한 ▲당원 주도 정당, '민생 1등'이 선거 1등이라는 슬로건으로 한 ▲지방선거 승리 ▲민생 주도 정당을 '3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상향식 공천'과 '여성 및 청년 공천비율 30% 확보', '조기공천과 전당직 선거제 운영'을 공약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천정배 "안철수 후보 내년 지방선거에 나와야"

국민의당 당권주자인 천정배 전 대표는 13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경쟁력 있는 당의 자산들이 전략 승부처에 전면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요청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의 패키지 선거로 당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천 전 대표 측은 "당원과 국민이 원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지방선거에 나와야 한다는 의

미"라며 "당 대표로서 천 전 대표도 요청이 있다면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전 대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담판하여 광역의원선거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의원 정수를 확대하며, 석패제 도입을 관철하겠다"는 언급도 했다. 아울러 풀뿌리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지역위원회와 의회 위원장협의회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일보 65 광주일보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요!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비용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비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비용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용량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2017. 1. 1. 부터 출고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조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라이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일반 제품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주 등

면적 150% 확대 색상 변경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보해양조

빈병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